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3.(수) 16:00
(지면) 2026. 5. 14.(목) 조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도 차질없이, 행정안전부, 시·도와 준비상황 점검

- 13일(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 18일(월)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상황 집중 점검
- 선불카드 물량 확보, 마을 방송 홍보, 찾아가는 신청 등 지역주민 밀착 지원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3일(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민께 신속히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1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이번 2차 지급은 한층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 선불카드 물량 확보, ‘찾아가는 신청’으로 취약계층까지 촘촘하게

우선,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취

약계층 국민이 지원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원자재가 대응 지침 안내 및 산림복구 현장점검 강화, 체납관리단 지원도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을 각 지방정부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이행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공·기성검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체납관리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현장에서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며,

“5월 18일(월)부터 진행될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점검, 홍보·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담당자	서기관	강민철 (044-205-3703)

